

공익 갤러리

연관 갤러리(1/4) | 갤주소 북

[최근 방문 갤러리](#) [공익](#) [연세대](#) [포켓몬 GO](#) [공무원](#) [이전3 리그 오브 레...](#) [수능](#)

유튜버(기자왕 김기자)의 마스크 공익과 인터뷰 대화 전문정리 2편

☞(123.215) 2020.01.29 16:31:36

AUCTION-

이누스i 디퓨저 1
50ml 3종 프리미엄
엄 디퓨저 / 방향

에비오스 2000정 X 3

당일발송 아사히
에비오스 2000정
1+1+

마스크 공익은 "원수를 쓰러트리기 전까지는 칼을 집어넣지 ...

<https://youtu.be/7Z0Z8qi63bw>

기자왕 김기자 : 약칭) 기자, 피해 사회복무요원 : 마공

<대화 전문>

기자 : 어떤 일인가요?

마공 : 31일에 동사무소 인터뷰 관련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자 : 동사무소에 대한 인터뷰 글 그게 뭔가요?

마공 : 다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분들이 전화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면담 인터뷰를 하는 등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기자 : 누구를 인터뷰하는 건가요?

마공 : 그 가해 공무원(시보 공무원)분과 제가 속해있던 팀의 팀장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보면 "제가 평소에 핸드폰만 하고 일 하나도 안 하는 근무태만 공익이다. 매일 잠을 자러간다. 평소에도 일 시키면 싫어하고 그랬다."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에 대한 허위적이고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려서 인터뷰를 하신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본까지 들었고, 저는 그 때 매우 기분이 안 좋았죠. 제가 있을 때는 그 분의 잘못만 타박했는데 제가 가자마자 저를 악당으로 만드시니까, 이 나라에 환멸감을 많이 느꼈죠. 가뜰이나 애국심도 떨어져 가는데. 많이 화가 나고 뉘통수가 아팠고 불안하더라고 요. 왜냐면 저에게 악플이 달리다 보니까, 특정 몇몇 (여초)카페에서 저를 남공익이라 지칭하고 저에 대해 민원을 넣고 신문고를 작성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시고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욕도 하고 저주를 하고 제 신상을 털겠다. 신상을 분석했다. 그런 글까지 올라오니깐 제가 많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2차 반박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자 : 구청으로 출근지를 옮긴 다음에 "해외에 가서 머리 좀 삭히고 와라" 해서 갔고 그런데 공익갤러리 유저들이 동사무소에 찾아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아니 그 마스크 공익도 잘한 거 없다 그 마스크 공익도...."

마공 : 평소 근무태만이고 이걸 CCTV로 보여주겠다, 증명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CCTV를 보여주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인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CCTV를 보여주겠다 제 허락도 없이. 그거에 대해 제가 많이 화가 나서 2차 해명문을 적게 되었습니다.

기자 : 2차 해명문에는 뭐라고 하셨나요?

마공 : 2차 해명문에는 그분이 저에 대해 인터뷰한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반박을 해서 해명글을 썼습니다 제가.

기자 : 첫 번째로는 'CCTV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CCTV를 보여주면 안된다고 쓰셨어요. 그 생각이 바뀌셨다구요?

마공 : 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기자 : 어떻게 바뀌셨나요?

마공 : 처음에는 제가 무조건 CCTV 안 보여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왜냐면 저도 사람인 이상 핸드폰 할 수 있고, 즉 근무를 하지 않는 휴식 시간에는 핸드폰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몰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혼자서는 절대 공개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명글을 썼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CCTV를 공개하면은 전체 직원이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보다 국가의 세금을 받으시는 공무원분들이 근무태만을 하거나 출장비를 부당 수급받거나 근무시간에 소량물만 하루종일 보거나 소셜 읽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근무태만으로 경고 받아도 5월이고 그 분들은 징계일텐데 CCTV공개해도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CCTV를 공개하되 다 공개하자?

마공 : 그쵸. 저만 공개하는 건 아니죠.

기자 : 그럼 너도 까라?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전부 다 공개해서 누가 더 핸드폰 많이 쓰는지 누가 더 노는지 한 번 공개해보자? 어느 정도 보신 게 있으니까?

마공 : 그쵸. 제가 많이 봤죠.

기자 : 어쨌건 CCTV 공개해도 된다?

기자 : 두번째로는 병가 사용 제한같은 것도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마공 : 그분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익한테 병가사용제한 같은 것도 없었고 병가 간다고 하면 다 보내줬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에서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 현실에서는 제가 병가를 쓴다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로 "너 병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눈치를 주시고 원래 결재 방식도 담당자분에게 사인 하나만 받았으면 되는데 병가 쓰기 전에 담당자, 팀장, 동장 이렇게 세 명의 결재를 다 받아야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결재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날은 반가 병가를 쓰고 싶어서 제가 치과를 가야되서 오늘 병가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 "치과 정도는 연가 써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간접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병가 제한을 받았습니다.

기자 :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결국 병가를 쓰셨나요?

마공 : 네. 치과 갈 때는 반가를 썼죠.

기자 : 그 분(시보 공무원)이 인터넷에서 보기에는 한 달 병가를 썼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가에 대한 압박을 받은 입장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공 : 저는 하루하루 쓰는 것도 눈치 보여서 두 달 동안 반가 밖에 한 번 안 썼는데 그분(시보 공무원)이 이렇게 한번에 한 달 내내 병가를 가시는 걸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예고 그분은 상전이시죠..

기자 : 상전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네요?

마공 : 그죠...공노비죠 저는.

기자 : 그런 생각이 평소에도 좀 많으셨나요?

마공 : 네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느꼈냐면 제가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수술까지 한 입장인데 동사무소에는 기구, 물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해명글에 올렸던 사진을 보시면 감장을 했을 때도 있었고 쌀을 옮겼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김치가 기부로 들어오면 한 박스에 10kg가 넘어가는 걸 그것도 다 저를 시켜서 옮기셨고 특히 쌀 같은 건 6kg 포대를 "너는 남자니까 4포대는 들어야지" 하면서 24kg 정도 되는 걸 저한테 주시고 그걸 또 많이 옮기게 하시고 허리가 아픈데도.....

기자 : 누가요?

마공 : 그거는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기자 : 그렇게 해서 허리가 아픈데도 무거운 걸 옮겼었다.

마공 : 네 그래서 지금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자 : 아 요즘 그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오히려?

마공 : 네 상태가 전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니다.

기자 : 그리고 그 반박문에는 또 뭐가 있었나요?

마공 : 그분이 인터뷰에서 "마스크 작업을 도와줬다. 담당자가 해줬다" 그런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 분(시보 공무원) 말고 다른 분이. 근데 현실적으로는 도와주지 않은 게 맞습니다. 마스크 소분 작업은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제 현역 친구랑. 그분이 도와주셨다는 건 처음에 상자가 왔을 때 같이 옮겨줬다. 그 정도입니다.

기자 : 여기서 그 분은 글을 쓰신 분이 아니죠?

마공 : 그죠. 그 분 말고도 다른 분이 인터뷰 하셨는데

기자 : 인터뷰 하신 분이 얘기하기에는 "마스크 소분 작업을 도와줬다" 라고 했는데 도와준 건 아니었다?

마공 : 네 안 도와주셨습니다. 전혀 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자발적 왕따였다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발적 왕따라기보다는 어울리지 못했죠.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고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기자 : 거기서 공익은 혼자 밖에 없었나요?

마공 : 네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로웠고 9시간 동안 저에게 아무도 말을 안걸어주셨습니다. 일 시킬때 빠른.

기자 : 근데 오늘은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죠?

마공 : 그러죠.

기자 : 그래 뭐 난 공노비고 (그분은) 상전이지만 내가 그거까지는 문제 삼지 않을게?

마공 : 공노비 주제에 어떻게 감히 상전에게 말을 놓습니까?

기자 : 그러나 굳이 모욕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냐?

마공 : 그죠. 그렇게 악의적인 루머까지 퍼트릴 필요는 없지 않냐.

기자 : 이 반박문에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마공 : 그분들이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마스크 업무를 하는 중에 다른 업무를 시킨 적이 없다" 하셨는데 평소처럼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종이를 스캔하고 파쇄기 종이가 꼭 차면 가는 거 저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평소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마스크 작업을 했습니다. 허리에 무리가는 일은 조금도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허리에 무리가는 일만 시키셨죠 저한테. 남자직원이 없다고.

기자 : 거기 남자직원이 많이 없나요?

마공 : 네 거의 없습니다. 한 3명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허리가 더 나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뒷담화를 한 적이 없다. 너로 오해한 것이다 이런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공익씨가 오해한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왜 뒷담화 했냐? 뒷담화 안 들리게 해야되지 않냐?" 그러니까 "미안하다" 사과문에서도 "뒷담화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그 분이 계속 인정을 해오셨는데 제가 다른 근무자로 옮기자마자 이런식으로 태도를 바꾸셔서 ... 해명글에도 있듯이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정하신 게.

기자 :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태도를 바꿔봤자?

마공: 네 달라질 건 없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에 공익이 저 밖에 없으니 특징이 됩니다. 친구들도 제가 거기 있는지 알고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연락이 안됐었는데 "이거 너 아니냐? 마스크 공익 너 아니냐? 힘내라" 이렇게 격려의 문자도 되게 많이 왔고

기자 : 주변 사람들은 좀 아시나봐요?

마공 : 네. 그 동사무소 공익이 저 밖에 없어서 제가 마스크 공익인 걸 알고 있습니다.

기자 : 지금은 해당 동사무소가 어딘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

마공 : 네

기자 : 주변 반응은 어때요 그러면?

마공 : 주변반응은 이제 "너가 재수 없었다. 똥 밟았다고 생각해라.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공익 갤러리에서 어떤분이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스크공익아 칼을 뽑았으면 원수의 목을 칠 때까지 집어넣지 말아라." 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말입니다. 저희 집 가훈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첫 날에 다 터트렸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안 받았을텐데 제가 바보같이 용서를 했죠. 용서를 하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다시 맞고. 이제는 칼을 갈고 있죠.

기자 : 어떤 칼을 갈고 있나요?

마공 :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셨으니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 준비라는 건 어떤 법적 검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공 : 네. 법적인 검토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기자 : 법적 조치까지 이제 생각하고 계신데 사회복무요원이면서 이런 걸 하는 게 조금 겁나시지 않나요?

마공 : 오히려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저는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직장을 잃을 걱정도 없고 저보다는 앞으로 저와 같이 근무하실 분들이 더 불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은 "재 인터넷에 글 쓰는 애 아니냐? 우리 실수도 글 써서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텐데.

기자 : 나는 괜찮다?

마공 : 네 저는 피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즐기고 있습니다.

기자 : 후회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오면서 후회한 일도 있어요?

마공 : 네 있습니다. 용서한 것ियो. 첫 날에 다 안 터트리고 화력이 식었을 때 다시 터트린 거. 그리고 용서한 것ियो. 첫 날부터 바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뒤통수 다 맞고 이제 들어가면 늦은 감이 있죠. 첫 날부터 들어갔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피해 받을 일도 없었고

기자 : 그러니까 화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라는 건 해당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그때서야 용서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고 저 사람들하고는 정말.... 원수의 목을 쳐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이 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때는 이미 실검 3위까지 갔던 마스크 공익에서 조금씩 관심이 식을 때였고, 그 여행을 갔던 게 오히려 독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마공 : 독이 됐죠. 핸드폰 연락도 잘 못하고....카카오톡으로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었으면 절차를 더 밟았을텐데 제가 직접 찾아가거나

기자 :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마공 :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같이 근무하실 공무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 앞에서 어떠한 비리나 부당한 일 그런 건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녹음기도 사서 다니고. 이게 제 녹음기입니다. 근무태만도 제 앞에서 하지 않으셨으면. 국민의 세금을 받은 만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근무하고 싶습니다.

기자 : 그 전에는 세금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 안했나봐요?

마공 : 그죠. 그것도 제가 많이 넘어갔죠. 그것도 제가 증거 수집 다 하면서 같이 터트렸어야 했는데 이번에. 그것도 좀 후회가 남네요. 그래서 제가 CCTV 다 공개하자라는게 그 이유가 거기에 다 담겨있으니까

기자 : 본인은 멘탈이 좋으신 편인가요?

마공 : 저는 안 좋은 편이죠. 안 좋은 편인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죠. 오히려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려니까 힘이 더 솟고. 원래 저는 좀 불안했거든요. 인터넷에 이렇게 글이 퍼지는 게. 애들한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가 "마스크 공익아. 너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재미가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포자기하고 지금은 복수를 위해서 열심히 멘탈을 잡고 있죠.

기자 :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마공 :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게 처음인데 제가 부당하게 받은 대우를 같이 분노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네티즌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자 : 앞으로는 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마공 : 앞으로는 (구청 감사실)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 결과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지켜봐주시고 감사 결과가 타당한 지 아니면 부당한지 그거에 대해 심판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공익님과 함께, 정확하게는 사회복지요원이죠. 사회복지요원 앞으로 약 7개월... 많이 남았네요.

마공 : 그죠. 군생활 진짜 오래했죠.

기자 : 7개월 남은 마스크 공익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공 : 감사합니다.

<인터뷰 후 추가 대화>

기자 : (마스크 작업) 이게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굉장히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공 : 이분이 어떤 식으로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시간이면 된다 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상자를 옮기고 그 옮긴 상자에 테이프 붙은 걸 하나하나 다 떼고 30장씩 세고 그리고 세다가 한 개씩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세어야돼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게 말처럼....이게 기계.... 저를 기계로 간주하고 계산하신 거 같은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이거. 하루에 최소 다섯시간씩 마지막 날은 (현역 친구랑) 둘이서 8시간씩 풀근무를 했으니까. 하루에 한 시간이면 되는 거 아니 라고 하시는 분들. 절대 안됩니다. 억측이십니다.

기자 : 그럼 2주간 5시간씩 하신 거예요?

마공 : 거의 그 정도 했죠. 첫 날과 마지막 날은 거의 하루 종일 했.

기자 : 그 쓰레기 같은 디시인사이드 가족들이 아냐? 라고 (어떤 민원인이 말)했었는데 디시인사이드는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마공 : 사실 저도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를 하지는 않았는데 공익들의 소양 교육센터라고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너네 공익들이 사이트 절대 하지 말아라. 공익 갤러리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어떨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해야죠. 그래서 흥미를 갖고 공익 갤러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새 공갤러가 된 거예요 제가.

기자 : 그 소양교육센터란 곳에선 왜 공익갤러리를 하지 말라고 하나요?

마공 : 사회복지요원들의 최대 커뮤니티고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하는 팁 그런 걸 공유하니까. 그 글을 보고 신고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사이트를 몰랐는데 소양 교육에서 너 공익 갤러리 하지마 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면 해야지 그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저도 글을 쓰게 됐네요

기자 :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나요?

마공 :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다 시작하게 만들었다.

44 🔒 0			0
hit	공유	신고	

